

노키즈존은 유지될 필요가 있는가?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 202211083 . 김준철

1. 서론

최근 노키즈존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나의 고향인 제주에 특히 노키즈존을 적용하고 있는 가게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나타난다. 현재 지도앱에 표시된 제주도의 노키즈존은 82개, 예스키즈존은 25개이다. 카페나 식당, 술집이 많은 서울의 유흥가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노키즈존’이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상점들은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떠들어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노키즈존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상점에 출입할 권리는 어린이에게도 있는데, 그것을 상점이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 없고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노키즈존을 반대하고 있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어린이 때문에 모든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그룹들의 자기존중 요구이다. 키즈카페는 키즈만을 위한 곳이고, 노인정은 노인을 위한 곳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그들만의 특징이라는 공통성을 크게 고려하여 편안하게 지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는 결혼 기피등으로 인하여 키즈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성장하는 키즈들에게는 배려와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그게 원만하게 되지 않는 일부 키즈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당연하게 느껴야할 이유는 없다. 각자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노키즈존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2.1 다른 고객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매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키즈존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2.1.1 카페같이 주로 조용한 분위기를 요구하는 장소에서 어린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게 된다면 많은 손님들은 물론 결과적으로 매장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헌법 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의 자유도 타인의 본질적 권리를 과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된다고 보면 노키즈존은 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주의 재량에 따라 노키즈존을 시행하는 건 어디까지나 업주 개인의 선택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키즈존은 죄 없는 어린이를 차별하는 게 아니다. 영유아나 어린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부모를 향한 제대다. 영유아를 키우는 게 벼슬인양 행세하며 식당과 카페에서 개념 없이 행동하는 부모에 대한 항의다. 업주들의 자구책으로 노키즈존을 이해하면 된다.

2.1.2 노키즈존 도입에 대해 유자녀 기혼자들이 오히려 반대의 의견보다 찬성의 의견에 많은 비중을 보였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노키즈존을 반대(29.3%)하는 유자녀 기혼자보다 찬성(54.8%)하는 유자녀 기혼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주목할 부문이라며 "유자녀 기혼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례가 많다보니 차라리 노키즈존이 도입되고 아이들을 마음 편히 데려갈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자의 65.8%가 자녀를 동반했을 때 업주나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봤거나, 어린이 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었거나, 입장 자체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¹⁾

2.2 노키즈존은 아이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2.2.1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것은 어린이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부모를 향한 제재이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아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한 사례가 있다. 영화관에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안계시니?'라고 물었더니 '우리만 영화보라 하고 엄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신대요.'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면 부모가 동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다. 이처럼 아이들과 동반하지 않고 내버려둔 행위 부모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2.2.2 공공장소에는 에티켓이 있고 매너가 필요하다.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를 받더라도 아이라서 이해하고 넘어가야한다는 태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맛있는 디저트로 입소문이 난 유명 카페들은 유독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 이유가 감성적인 카페에서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으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깨져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사고를 빈번히 일으킨다는 이유도 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 노키즈존 카페 주인은 "좁은 카페 안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테이블과 의자, 쿠션 등을 소독해달라는 등 지나치다 싶은 요구를 하는 손님이 있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자주 오던 단골도 떠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 동반 고객을 문전 박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고충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키즈존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키즈존을 선언한 점주들의 입장이다.²⁾ 이 기사처럼 카페 안에서 어린이들 동반한 일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손님들이 많아져 식당에 손님이 줄어드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그리하여 점주들도 피해를 보고 사람들도 다시 찾아가기 불편하기만 하다.

1) 전아름, 「국민 10명 중 6명 노키즈존 '찬성」, 『베이비뉴스』.

2) 김유정, 「'노키즈존' 꾸준히 증가... "아이 안 받으니 매출 늘어"」, 『ECONOMY Chosun』.

3. 반론

3.1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어린이를 꺼리는 문화까지 생길 가능성이 보인다.

3.1.1 많은 카페의 노키즈존이 생긴다고 하여도 요즘 들어 키즈카페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키즈카페를 이용하면 된다. 미래에 키즈카페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면 저출산 문제가 증가하는 것이 노키즈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1.2 아이들도 고객의 일부이지만 주로 식당이나 카페에 주 고객은 아이나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다. 아이들 전부를 시끄러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식당에서 이미 피해를 준 경험이나 다른 사례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는 권리는 그 식당에 주인인 점주에게 있으니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2 노키즈존도 명백한 차별이다.

3.2.1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식당 주인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식당 주인의 자유권보다 아이와 아이의 부모의 평등권만 강조한 셈으로 노키즈존은 차별이라 볼 수가 없다.

3.2.2 이제까지 식당에서 노키즈존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하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시대가 변해가며 사람들의 생활도 변해가기 때문이다. 카페는 조용히 공부를 하거나 음료나 디저트를 그 가게 인테리어 분위기와 함께 느끼고 싶는데 그걸 아이들이 방해할 한다고 생각하면 카페를 갈 마음이 없어질 것 같다. 그리고 육아가 힘든 이유는 어린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당에서도 아이를 확실히 통제한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출입을 금하는 것은 차별이라 볼 수 없다.

4. 결론

만약에 식당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자. 그것도 아이로 발생한 사고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책임은 아이를 불찰한 부모가 지는게 맞는건가? 아니면 그럼에도 업주에게 지는게 맞는건가? 그 아이를 챙겨야 하는 사람은 그 아이의 부모이다. 그 부모가 아이를 챙기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라면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부모가 지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리면 업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어지고 상황만 불리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키즈존은 현재 사회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키즈존을 유지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여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 및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비자는 아이들로 인해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업자는 평소 아이들과 관련한 애로사항들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었던 가게 사정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식당 고유의 분위기와 차림을 아이들로 인해 와해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사회에 노키즈존은 반대할 내용이 아니라 필요로 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참고문헌

신문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864>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3&t_num=13608127

인터넷 자료

<https://blog.naver.com/afromz001/222661103662>